

남북교류 기초 ‘상생’과 ‘공존’

방북단 성과 발표

남북불교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조계종이 불교경전의 한글화와 의식 및 수행체계 통일을 북측에 제안했다. 묘향산 보현사에서 봉행된 대장경 판각 1000년 기념 남북합동법회를 마치고 돌아온 조계종 대표단은 지난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북 성과와 의미를 설명했다. 방북단장을 맡은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영답스님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남북합동법회 후 향후 남북한 교류의 기조로 ‘상생’과 ‘공존’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제시했다”며 “불교 교류뿐만 아니라 남북정부 당국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해 평화적인 교류를 통한 협력의 길이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남북 불교계의 이질화를 경계하고 동질성 회복을 위해 불교경전의 한글화와 의식 및 수행체계 통일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선불교도연맹도 이에 공감함에 따라 향후 남북불교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영답스님은 이와 함께 “종교단체를 비롯한 문화적 교류의 경우 대규모 행사 등 인적교류가 보장되어야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며 “부처님오신날과 8·15 남북 공동법회, 금강산 신계사와 묘향산 보현사 등에 대한 성지순례 및 불교문화재 공동 복원 등의 교류행사를 남북한 정부당국이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장영성 기자

알림

QR코드로 만나는 불교신문 뉴스

스마트폰용 모바일 웹 서비스를 시작한 불교신문은 주요 뉴스를 QR코드로 제공합니다. 불교신문 인기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만나보세요.



“전통문화 계승사업은
특정종교 지원이 아니다”
총준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작은 배우 있어도
작은 영학은 없어요.”
불교인문 ‘무사 백동수’ 명품조언 배우 안석환



조계종 방북단은 지난 4일 평양의 조선불교도연맹을 방문해 현대기술로 재현한 해인사본 <금강경> 목판본 등 경판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심상진 조불련 위원장.

판각1천년 ‘평화대장경’ 남북교류 숨통을 트다

남북불교, 北 보현사서 통일기원 합동법회 봉행

남북 불교 대표단이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을 맞아 민족의 화해 협력을 증진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남측의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북측의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 위원장 심상진)은 지난 5일 오전 북측의 묘향산 보현사에서 ‘팔만대장경 판각 1천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이하 합동법회)’를 봉행하고 민족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방북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천안함 침몰사건 등으로 인해 정부가 남북불교교류의 전면중단을 선언한지 5·24조치 이후 처음이다. (본지 2750호 1면 참조)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 법회의 봉행사를 통해 “고려대장경은 단순히 불경(佛經)을 새긴 것이 아니라 평화와 희망의 상징이요, 합심과 단결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대장경 조성을 통해 국난을 극복했듯이 이제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진 위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합동법회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가며 팔만대장경을 더 잘

보존하고 빛내는데 기여하는 또 하나의 ‘통일불사’가 되리라 확신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참가 사부대중은 고불문과 공동발원문을 통해 부처님 앞에서 실천행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도선사 주지 선묵스님이 대표로 봉독한 고불문(古佛文)에서 합동법회 사부대중은 “2010년 1월 남측 조계종대표단의 방북 시 조선불교도연맹과 합의한, 우리 민족문화의 자주성과 우수성을 빛내기 위해 △북측 불교문화재 복원 보수와 유지관리에서 협력사업 추진 △팔만대장경목판 제작 1천년을 맞으며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국제 무대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 등 3개항의 실천사항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4일 오전 조계종은 조선불교도연맹을 방문, 현대기술로 재현한 해인사본 <금강경> 목판본 1질(9판)과 <반야심경>(10판), 풍경(風景)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 <금강경> 선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전하는 선물이며, ‘풍경’은 도선사가 금강산 신계사에 이어 두 번째로 북측에 전달한 것이다.

특히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최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이 반야심경과

금강경, 발원문 등의 의례를 한글로 봉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남북불교가 우리말로 불교의식을 봉행하면 이질감 해소를 통한 동질감 회복이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며 양측 실무진을 통한 연구를 제안했다. 심상진 위원장도 이같은 제안에 대해 “남북불교 교류가 활성화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이번 합동법회에는 남측에서는 모두 37명이 참석했다. 단장을 맡은 총무부장 영답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 조계사 주지 토진스님과 해인사 주지 선각스님을 비롯한 전국 7개 교구본사주지 등 종단 중진스님들이 대거 참여했다. 종단 이외에도 인명진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박남수 동학민족통일회 대표의장, 곡진만 세계평화재단 부이사장 등 이웃종교인사 등도 참여해 전통문화유지보존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의 의미를 깊게 했다. 북측에서는 심상진 위원장과 이규룡 서기장을 비롯한 조불련 관계자와 보현사 주지 청은(淸隱明)스님을 비롯한 200여명의 불교도가 참석했다.

▶관련기사 3면

평양=김신두 기자

sdskim25@bulgyo.com

교회투표소, 공직자 인식문제 아닌가

부득이한 경우 예외 ‘핑계’…담당직원들 시정의지 없어 보여

공직자들의 인식부재로 특정종교 시설 투표소 설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지난 8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여전히 특정종교 시설이 투표소로 사용된 것을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질의서를 보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한 술 더 떠 “서울시장 보궐선거일도 평일이어서 투표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거위원회가 지난 5일 보내온 회신공문에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앞세울 뿐 시정 의지는 없어 보였다. 서울시선거위는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평일에 실시되는 투표에 따른 투표소 확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등에 적극적인 협조요청을 통해 대부분 적당한 장소를 투표소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30개소 투표소는 적합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했다”며 “선거위

는 향후 실시되는 각종 선거에 있어 서도 종교시설 투표소에 대한 대체장소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6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부득이하게 특정종교시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만 털어냈다.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다른 시설을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지만 투표소를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상은 서울시선거위 선거1계장은 “이번 무상급식 투표의 경우 날씨가 평일이다 보니 건물을 빌리기가 어려웠다”며 “지난해 지방선거 때는 휴일이어서 17개소를 특정종교

시설 투표소로 사용했지만 올해는 장소를 빌리기 쉽지 않아 30개를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교회와 성당만 투표소로 사용하고 있어 종교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는 “특정종교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는 장소로 교회 밖에 없어 최종 선택한 것”이라며 “이런 지역은 사람이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8월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총 2206개 투표소 가운데 30개 투표소가 종교시설에서 이뤄졌다. 교회가 25곳, 성당이 5곳이었다.

2면에 계속

홍다영 기자 hong12@bulgyo.com

“낙산사 해수관음사리탑 보물된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사리)을 비롯해 사리비, 사리장엄구 등의 유물이 일제히 보물로 지정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5일 ‘양양 낙산사 해수관음공중사리탑·비 및 사리장엄구 일괄’ 7종 37점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공중사리탑과 공중사리비와 사리장엄구 등 관련 유물 가운데 어느 하나 결실되지 않고 모두 갖추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으며, 조선 후기 사리장엄 의식의 일단 면을 뚜렷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이 인정돼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공중사리탑은 △건립연대가 1692년으로 밝혀져 비슷한 시기의 승탑을 비롯한 관련 석조물의 편년에 소중한 준거가 된다는 점 △승탑형 불사리탑의 새로운 예가 추가되었다는 점 △양식적으로나 세부에 있어서나 조선시대 왕릉의 장명등과 유사성이 다분해 양자 사이의 교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 등에서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인정 받았다.

염태규 기자 che11@bulgyo.com

지면안내

성철스님 탄신100주년 세미나 5면

‘불교신문이 만난 사람’
손학규 민주당 대표 8면



조계종 사찰복지재단
국제구호현장을 가다 14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법석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한국불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떠한 한국불교를 만들 것인가?’
‘한국불교,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우리 종단은 한국불교중흥이라는 큰 하두를 설정하여 사부대중과 함께 토론함으로써 나아갈 방향과 내용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한국불교중흥이란 한국불교가 ‘시대와 중생계에 부응하며 자비를 실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중생계의 혼란과 고통을 자신의 중심적 문제로 삼는 것이며, 불교를 다시 한 번 한반도에서 꽃피우고, 인류사회의 큰 가르침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의 문제는 오늘날 한국사회와 세계문명의 흐름을 잘 알아야 그 내용과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구체적 해답의 모색을 위해 종단의 ‘승가교육진흥위원회’는 2011년 1월부터 매달 1회씩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지도자와 전문가, 스님과 재가불자들이 모두 모여 기탄없는 토론을 통해 문수보살의 대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9월 대토론회

- 주 제 : **현대 명상문화와 한국 선(禪)의 과제**
- 발제 및 토론
 - 사회자 : 미산스님(종양승가대 교수)
 - 발제자 : 수불스님(안국선원장)
 - 토론자 : 월암스님(한산사 용성선원장)
 - 김 태 완(무심선원장)
 - 이 제 열(유마선원장)
- 일 시 : 불기 2555(2011)년 **9월 28일(수) 14:00**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
- 문 의 : **대한불교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 (02-2011-1810)**

불기2555(2011)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승가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자 승

불기2555(2011)년 진행 일정 및 주제

월	주 제
1. 27	한국불교의 현재적 성찰과 나아갈 방향
2. 23	한국불교 교단과 국가
3. 30	현대사회에 구현해야 할 불교적 가치 - 종단 5대 결사를 중심으로
4. 27	생명·생태문제와 한국불교
5. 25	한반도 평화·통일문제와 한국불교
6. 29	사회정의 실현과 불교의 자비실천
7. 20	출가와 재가의 역할을 찾아
8. 31	1700년 불교문화, 어떻게 보존·활용할 것인가?
9. 28(수)	현대 명상문화와 한국 선(禪)의 과제
10. 26(수)	지역불교 활성화 위한 교구의 역할 - 발제자 : 법안스님(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11. 23(수)	조계종지(曹溪宗旨)의 현대적 구현
12. 21(수)	한국불교중흥을 위한 실천과제 - 대토론회 총결산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대토론회 당일 실시간으로 조계종 홈페이지(http://www.buddhism.or.kr)와 미디어불대(http://www.mediabuddha.net/)를 통해 생중계됩니다.